

Shoulder Impingement Syndrom에 대한 Arthroscopic Sub-Acromial Decompression의 술 후 경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김 성 재, 박 문 수

<연구 목적>

견관절의 전방거상시 상완골의 대결절이 견봉의 전연과 오구견봉인대 및 견봉쇄골관절의 하면과 마찰을 유발하여 동통을 야기하는 견관절 감입 증후군은 전방견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과거에는 본 질환이 수술적 치료로 견봉의 전방을 개방하여 비후된 견봉하 점액낭과 견봉의 전방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치료하였으나, 최근에는 관절경을 이용하여 치료한 결과 그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견관절 Impingement syndrome 환자중 58명(59례의 견관절)에서 관절경적 감압술 및 회전근개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그 치료 결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에서 1990년부터 1996년 12월까지 견관절 감입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관절경적 감압술을 시행받은 58명의 환자, 59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43명(44례)이었고 여자가 15명(15례)이었다. 연령별로는 17세에서 62세까지로 평균연령은 남자가 38.7세였고 여자가 48세였다.

첫째로 각군을 Neer's impingement syndrome stage에 따라 제 2군, 제 3A, 3B군, 제 3C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고, 둘째로 각군을 연령별로 제 1군(25세이하), 제2군(26-40세), 제3군(41세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셋째로 각군을 증상의 발생기간별로 제 1군(1년이하), 제2군(1-5년), 제3군(6년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치료결과는 UCLA견관절 평가척도(Shoulder rating scale)와 Rating scale of The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을 사용하여 수술전후의 상태를 비교평가하였다. 각 군의 환자에 대하여 수술전과 수술후의 종합성적 및 동통척도(pain scale), 기능척도(functional scale), 능동적 전방굴곡 척도(active forward flexion scale), 그리고, 전방굴곡강도척도(strength of forward flexion scale)을 반복측정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고 또한 Rating scale of The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을 사용하여 수술전과 수술후의 종합성적 및 각 항목별 점수를 반복측정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고 각 군간의 치료결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로 각군을 Neer's impingement syndrome stage에 따라 분류후 비교한 결과 각군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 둘째로 각군을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각군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셋째로 각군을 증상의 발생기간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각군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견관절 Impingement syndrome 환자에서 관절경적 감압술 및 회전근개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후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술당시의 Neer's impingement syndrome stage가 있고 stage가 낮을수록 치료결과가 좋았고 환자의 수술당시의 연령과 증상의 발생기간은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